

항공운송 동향분석

# 2011년 10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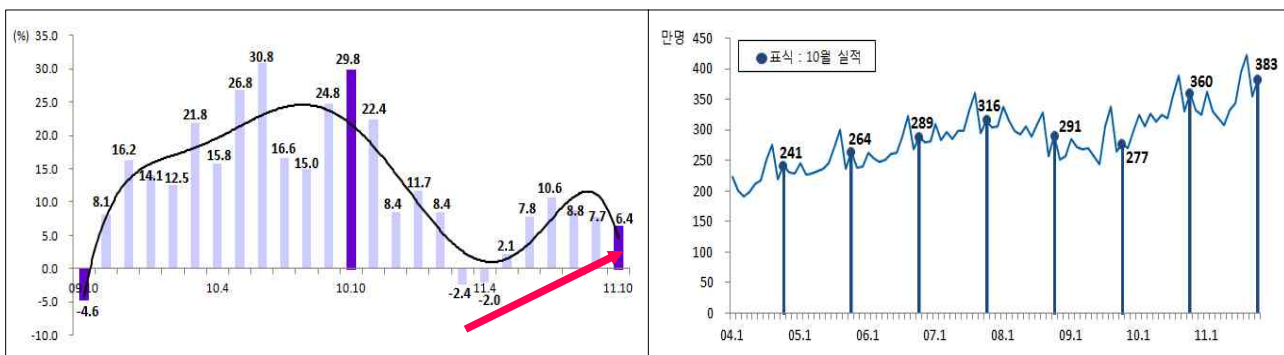
## '11년 10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 국제선 : 태국 방콕 대항수, 태국노선 수요증가율 감소
- 국내선 : KTX 전라선 개통, 여수공항 수요감소

❖ 글로벌 금융 및 경기불안 여파로 인한 원·달러 환율상승, 비즈니스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로 국제 및 국내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6.4%, 5.5%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한 반면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3.5% 감소하며 감소세 확대

### 국제여객

2011년 10월 국제여객은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비즈니스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천절연휴(10.1~10.3), 중국 국경절연휴(10.1~10.7) 등을 이용한 해외여행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6.4% 증가한 3,829,447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10.6~10.14), FIA 포물러1 월드 챔피언십(10.14~10.16) 등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가 여행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아래 <표 1>은 공항별 국제선 운항 및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공항 전체적으로 10월 운항과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9.3%,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공항은 김포공항으로, 중국 국경절 연휴 특수효과로 인하여 전년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김포-베이징 노선이 운항 재개됨에 따라 김포공항을 이용한 중국노선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0월 김포-홍차오노선 여객은 전년대비 17.7% 증가하고 김포-베이징 노선은 홍차오노선보다 12%정도 높은 여객수요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양양공항이 전년대비 32.3%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8월 이후 대만 전세기 취항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다가 10월 처음으로 플러스성장을 보이며 대폭 증가된 것이었다.

3월 일본 대지진 발생이후 외래객 방문객이 지속 감소하였던 제주공항은 중국여객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다. 대지진 발생이후 9월 처음으로 플러스성장을 보인 일본노선 수요는 10월 전년대비 1.3% 증가하며 전월대비 1.4%포인트 감소하며 회복세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10월	'11년 10월	전년대비	'10년 10월	'11년 10월	전년대비
인 천	18,233	19,345	6.1%	2,918,779	3,014,274	3.3%
김 포	1,243	1,735	39.6%	274,157	363,751	32.7%
김 해	2,172	2,599	19.7%	299,787	335,427	11.9%
제 주	523	593	13.4%	70,643	80,983	14.6%
대 구	88	121	37.5%	11,715	14,927	27.4%
청 주	142	115	△19.0%	14,856	12,891	△13.2%
무 안	64	56	△12.5%	7,679	6,133	△20.1%
양 양	12	14	16.7%	802	1,061	32.3%

〈표 2〉 지역별 여객실적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10월	1,002,282	863,467	1,004,115	328,370	239,767	102,668	58,041
'11년 10월	984,362	902,399	1,164,948	321,397	263,170	128,152	65,019
전년대비	△1.8%	4.5%	16.0%	△2.1%	9.8%	24.8%	12.0%

〈표 2〉는 지역별 국제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일본과 미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지역은 대양주지역으로 전년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동남아지역이 전년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발 금융위기, 미국의 경기 재침체 우려 영향 등으로 미주지역은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유럽지역은 전년대비 9.8% 증가하며 상반된 양상을 보였으며, 중국은 전년대비 기저효과 영향으로 다소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지난 3월 대지진 발생이후 일본노선의 수요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1%(3월) → △30.3%(4월) → △22.7(5월) → △10.9(6월) → △6.6(7월) → △5.6(8월) → △2.0(9월) → △1.8(10월)로 5월 골든위크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운항 중단되었던 센다이공항도 지난 9월 25일 운항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최근 오키나와 인근에서 6.8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으로써 일본여행수요 회복세는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10월 국적사의 비율은 전 지역 평균 66.8%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4.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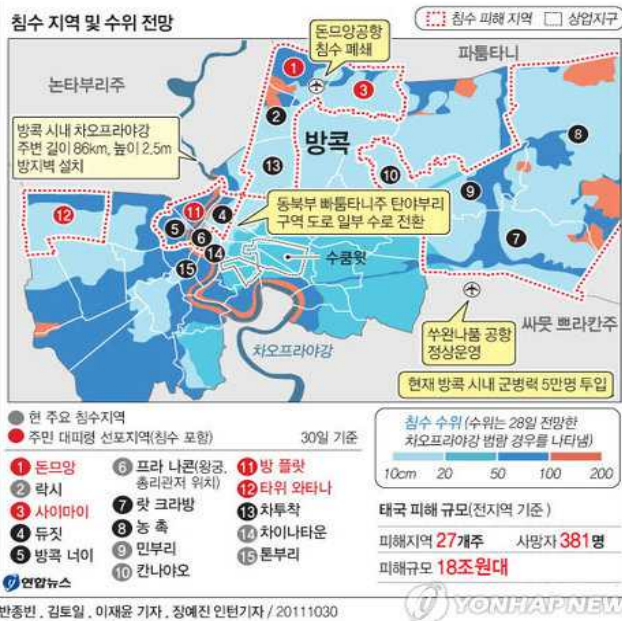
\* LCC 분담률 : 0.1%('08.10) → 0.6%('09.10) → 2.5%('10.10) → 4.7%('11.10)

10월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공급좌석 확대에 따른 환승여객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48만 명, 환승률은 15.9%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승여객 : 46만명('09.10) → 45만명('10.10) → 48만명('11.10)

\* 환 승 률 : 20.1%('09.10) → 15.5%('10.10) → 15.9%('11.10)

❖ 10월의 이슈사항 : 태국 홍수, 방콕 돈므앙공항 침수폐쇄



10월의 이슈사항으로는 태국 대홍수 장기화사태를 꼽을 수 있을 수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 태국 중북부지역에서 시작된 홍수 피해가 더욱 확산되면서, 10월 25일 방콕 북단에 위치한 돈므앙공항의 활주로가 강물 범람으로 침수되었고, 11월 1일까지 폐쇄소식을 알렸다. 돈므앙공항은 하루 100여편의 항공기가 운항되는 태국 최대의 국내선 공항이다.

(그림 자료출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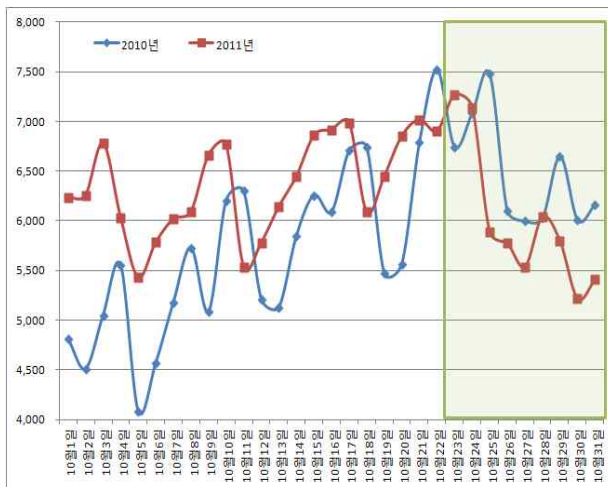
침수지역을 빠져나가는 태국 방콕 시민들의 모습 (그림 자료출처: 연합뉴스)

〈표 3〉을 통해 태국의 여객실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0월 누계기준으로 태국은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나 10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7.5%만 증가하였고, 특히 금번 홍수로 피해가 극심하였던 방콕은 누계기준 27.7% 성장대비 10월 단 3.5%만 증가함으로써 여객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동남아 노선에서 태국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태국 노선에서 방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전체 동남아노선의 약 16%)로, 전체 동남아노선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방콕의 침수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태국노선 여객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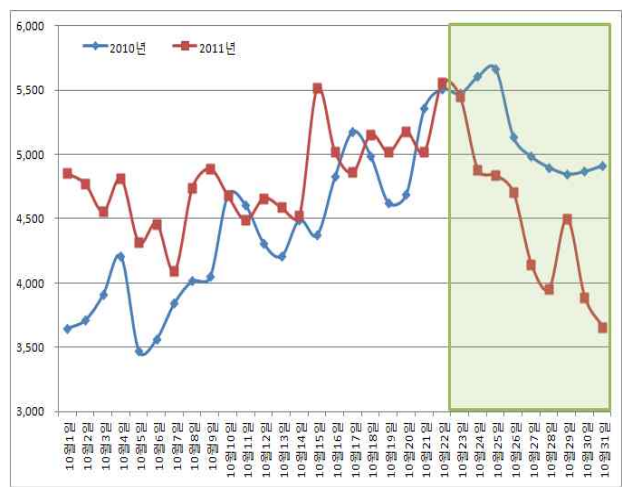
〈표 3〉 태국의 여객실적 비교

	2010.1~10	2011.1~10	전년대비	2010.10	2011.10	전년대비
방콕	1,373,334	1,754,352	27.7%	165,663	171,392	3.5%
치앙마이	32,622	46,198	41.6%	2,651	3,979	50.1%
푸켓	305,828	399,038	30.5%	38,845	47,261	21.7%
우타파오	3,984	13,600	241.4%			
태국 계	1,715,768	2,213,188	29.0%	207,159	222,632	7.5%

인천-태국노선 10월 여객변화



인천-방콕 노선 10월 여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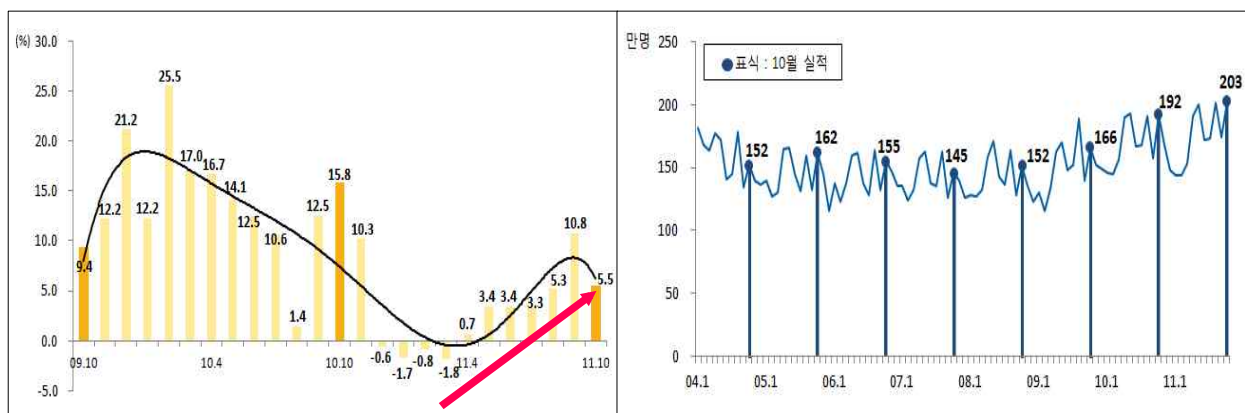
〈그림 2〉 인천공항 태국/방콕 10월 여객 변화



〈그림 3〉 '11년 10월 누계기준 태국 노선 비중

## 국내여객

10월 국내여객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 개천절 연휴, 중국 국경절연휴 등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5.5% 증가 2,026,888명을 달성하였다. 지난 6~8월 3%의 성장세로 둔화현상을 보이다 전월 추석연휴 여행 및 귀성여객 수요 증가로 약 11%로 급성장하였으나 10월은 전년대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8월과 유사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내선 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4〉 제주노선 vs 내륙노선 비교

구 분	제주노선		내륙노선	
	여 객	탑승률	여 객	탑승률
'10년 10월	1,413,644	82.9%	506,824	75.3%
'11년 10월	1,607,260	87.2%	419,628	65.6%
전년대비	13.7%	4.3%p	△17.2%	△9.7%p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10월 전년대비 13.7%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추석 귀성여객수요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보였던 내륙노선은 10월 다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며 탑승률 또한 전년대비 9.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를 통해 공항별 운항 및 여객실적을 보면 제주·김포·김해·광주공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공항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X 2단계 개통 영향을 크게 받는 울산공항은 운항과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34.2%, 44.4%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10월 5일 개통한 KTX 전라선의 영향으로 여수공항은 여객이 전년대비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의 경우 여객이 전년대비 14.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 운임할인 이벤트, 개천절 연휴 등으로 여행소비 심리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제주노선의 대형 국적사의 운항 및 여객수요는 전년대비 각각 0.2%, 1.3% 증가한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및 여객은 전년대비 각각 15.8%, 33.4% 증가하면서 제주공항을 방문하는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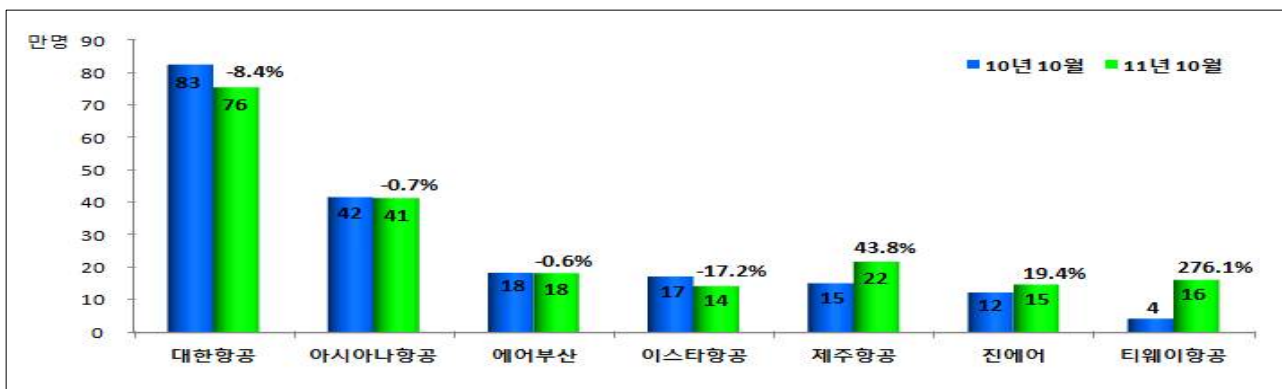
10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실적은 855,604명, 분담률은 전년대비 7.0%포인트 상승한 42.2%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11.6%('08.10) → 31.5%('09.10) → 35.2%('10.10) → 42.2%('11.10)



〈표 5〉 공항별 국내선 운항 및 여객실적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10월	'11년 10월	전년대비	'10년 10월	'11년 10월	전년대비
제 주	4,471	4,803	7.4%	711,537	813,470	14.3%
김 포	4,632	4,693	1.3%	674,482	702,018	4.1%
김 해	1,652	1,664	0.7%	237,127	244,545	3.1%
광 주	425	456	7.3%	59,574	63,687	6.9%
청 주	318	338	6.3%	52,750	52,129	△1.2%
대 구	314	312	△0.6%	48,922	48,070	△1.7%
여 수	368	242	△34.2%	47,674	26,499	△44.4%
울 산	248	236	△4.8%	29,926	25,352	△15.3%
인 천	217	212	△2.3%	23,726	22,572	△4.9%
포 향	165	153	△7.3%	16,416	11,093	△32.4%
군 산	62	62	0.0%	7,871	7,917	0.6%
사 천	72	76	5.6%	6,361	6,033	△5.2%
원 주	28	31	10.7%	3,028	2,815	△7.0%
무 안	11	10	△9.1%	1,074	688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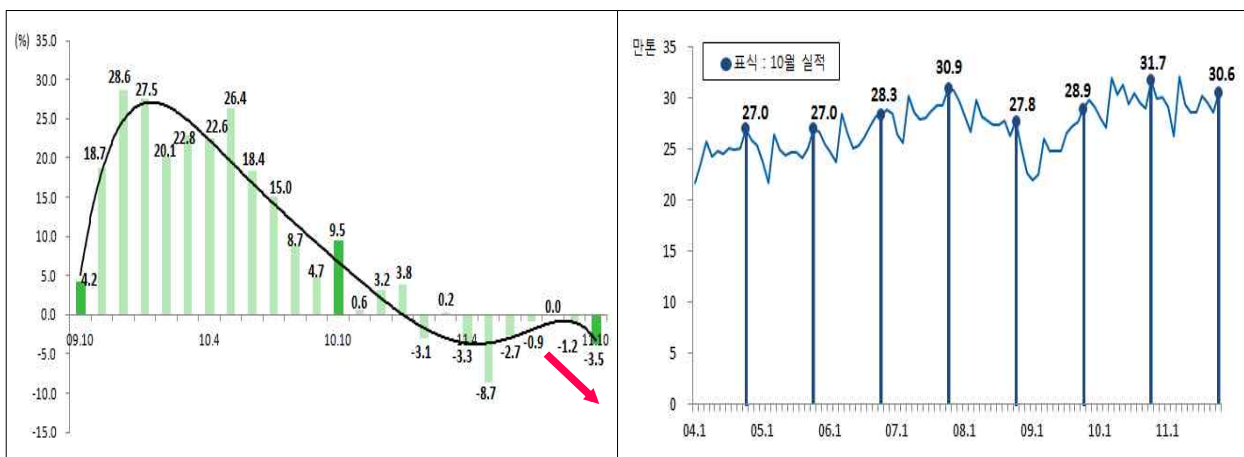
〈그림 5〉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 항공화물

10월 항공화물은 미국 경기둔화, 유로존 재정위기 등 우리나라 주요수출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신흥권 시장의 제조업 위축,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이 상승되면서 전년대비 3.5% 감소,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제화물은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IT제품 구매위축, 소형화 트렌드로 인한 중량감소 등으로 수요가 지속 감소함으로써 전년대비 4.8% 감소한 279,566톤을 기록하였고, 국내화물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26,358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약 95%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10월 전년대비 6.1% 감소하며 전월에 이어 전체 항공화물실적의 감소세를 이끌었고, 국내화물의 경우<sup>1)</sup> 제주공항이 10월 전년대비 32.6% 증가, 김포공항이 10월 전년대비 3.2%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항공화물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1) 제주공항: 2011년 10월 기준 51% 점유, 김포공항: 2011년 10월 기준 26% 점유

〈표 6〉 지역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구분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 타
'10년 10월	42,461	53,803	74,199	62,887	52,727	4,234	3,319
'11년 10월	38,385	49,795	73,769	57,991	50,868	4,783	3,976
전년대비	△9.6%	△7.4%	△0.6%	△7.8%	△3.5%	13.0%	19.8%

〈표 6〉은 지역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감소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화물시장의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3월 대지진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10월 지역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미주지역과 중국이 경기부진 영향으로 전년대비 7%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전월까지 성장세 둔화현상을 보였던 중국이 10월 전년대비 7.4%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진권 경기둔화 영향이 신흥권 시장에 전이되면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10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인 50.4로 하락하면서 생산과 수출 모두 부진함을 시사해주었다. 우리나라 IT 주요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중국이 모두 경기부진 영향으로 지속 침체되는 점은 4/4분기 항공화물의 실적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지식경제부 자료(금액기준)에 의하면 10월 IT제품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제품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휴대폰이 중국, 미국, 유럽에서 모두 감소되었으며, 패널의 경우 일본, 대만 등 경쟁업체의 감산 등으로 전월대비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 \* 전년대비 IT 수출 증가율 : ('10.10) 17.2% → ('11.10) △2.2%
- \* 전년대비 IT 수입 증가율 : ('10.10) 22.0% → ('11.10) △2.7%
- \* 패널 수출 증가율(%) : (11.1) 4.0 → (3) -3.3 → (5) -7.0 → (7) -21.2 → (9) -3.7 → (10) 1.1

10월 항공화물은 국내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기부진, 휴대폰의 글로벌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그간 단가하락으로 감소하였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부문이 회복되고 있고, 일본·대만 등 경쟁업체의 패널 감산 발표, 연말 시즌 효과 등이 기대됨에 따라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10월 99,507톤으로 전년대비 1.4% 감소, 환적률은 전년대비 3.0%포인트 상승한 45.7%를 기록하였다.

## 9월 공항 출입국동향

중국, 태국, 홍콩, 일본 등 외국인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9월 전체 외래국 입국은 전년대비 18.6% 증가, 내국인 출국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항을 이용한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18.6% 증가한 78만 명, 내국인 출국은 1.4% 증가한 94만 명으로 내국인의 비율은 54.7% 수준이었다.<sup>2)</sup>

- \* 전체 출입국자 : 192만 명, 공항 이용 출입국: 173만 명
-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0.9월 66만 명 → '11.9월 78만 명)
-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0.9월 93만 명 → '11.9월 94만 명)

2)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 외래객입국은 86.4%,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은 93.2%에 해당한다. 외래객 입국은 인천, 김포, 김해 순으로, 내국인 출국은 인천, 김해, 김포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외래객입국의 경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공항이 전년대비 모두 큰폭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고, 내국인 출국의 경우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모두 증가하였으나 인천공항이 조금 감소하였다.

〈표 7〉 출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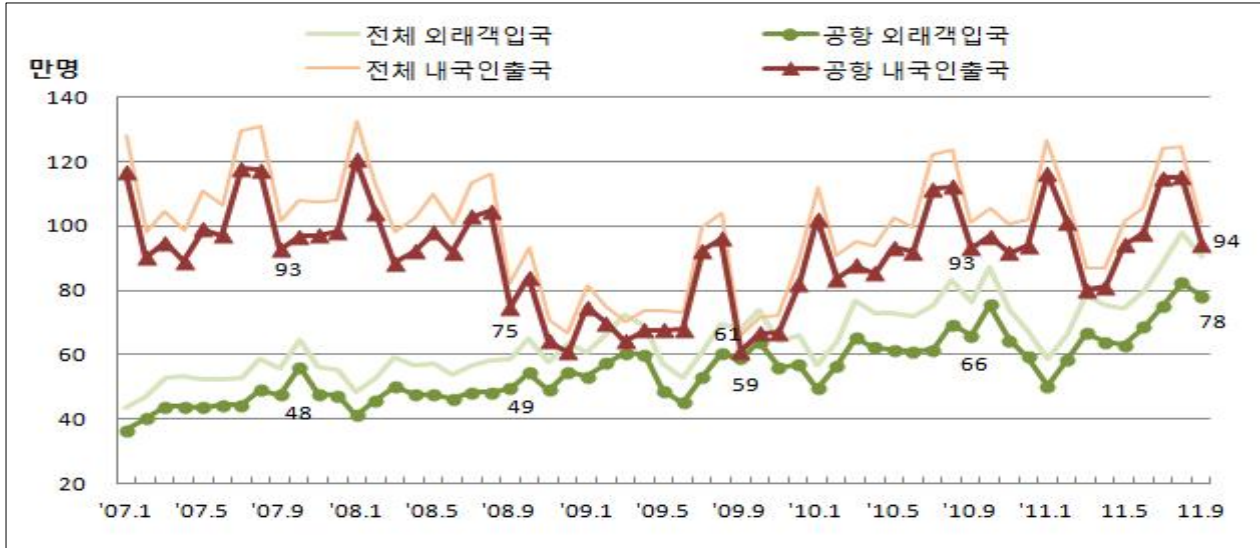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구 분	공항					비율	항구	비율	합계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외래객입국	546	56	110	67	4	783	86.4	124	13.6	907
내국인출국	761	105	63	4	12	945	93.2	69	6.8	1,014
계	1,306	161	174	71	16	1,728	90.0	192	10.0	1,920

〈표 8〉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율 (%)
	'10. 9월 입국	'11. 9월 입국	증감 (%)	점유 (%)	'10. 9월 출국	'11. 9월 출국	증감 (%)	점유 (%)	
공 항	660,322	783,037	18.6	86.4	931,662	944,900	1.4	93.2	54.7
· 인천	480,194	545,587	13.6	60.2	769,459	760,608	-1.2	75.0	58.2
· 김해	42,433	55,881	31.7	6.2	90,725	105,283	16.0	10.4	65.3
· 김포	75,650	110,441	46.0	12.2	55,652	63,291	13.7	6.2	36.4
· 제주	56,233	67,082	19.3	7.4	3,645	4,095	12.3	0.4	5.8
· 기타	5,812	4,046	-30.4	0.4	12,181	11,623	-4.6	1.1	74.2
항구 등	104,371	123,776	18.6	13.6	81,461	68,607	-15.8	6.8	35.7
합 계	764,693	906,813	18.6	100	1,013,123	1,013,507	0.0	100	52.8



〈그림 7〉 외래국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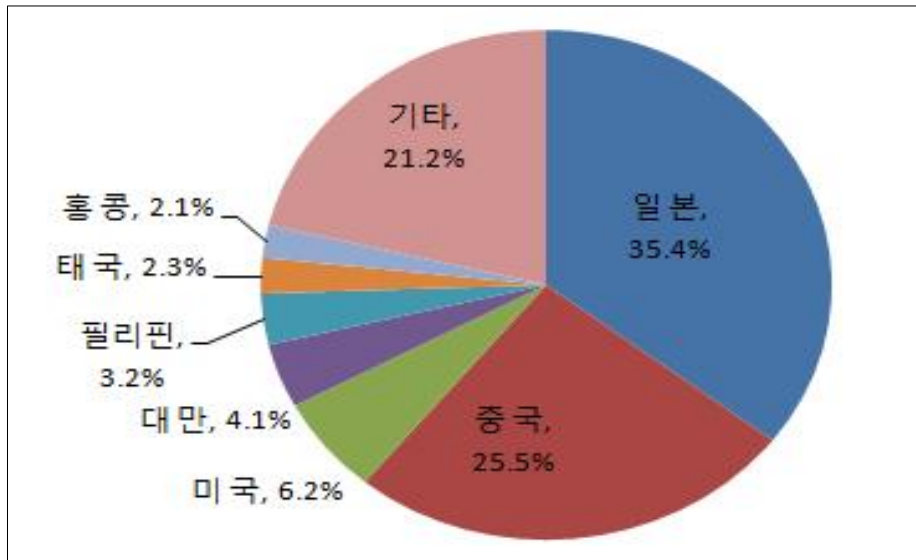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9월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태국, 홍콩 국적의 외국인 입국이 전년동월대비 25%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일본인도 20.5% 증가하였다.

2011년 9월 외래객 입국 중 각 국적의 비율은 일본이 35.4%, 중국이 25.5%, 미국이 6.2%에 해당한다.

〈표 9〉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입국	공항				공항 전체	성장률 (%)	국적별 점유(%)
		인천	김해	김포	제주			
일본	321,231	166,818	27,372	90,879	18,382	303,637	20.5	35.4
중국	231,462	113,188	9,444	10,175	37,716	172,955	26.9	25.5
미국	56,103	49,539	2,113	1,827	315	54,731	1.9	6.2
대만	37,205	32,710	2,109	198	1,627	36,827	15.5	4.1
필리핀	29,306	6,920	1,490	65	2,075	10,556	21.1	3.2
태국	20,413	18,893	987	50	46	20,104	27.7	2.3
홍콩	18,788	15,999	1,872	112	527	18,514	30.3	2.1
전체	906,813	545,587	55,881	110,441	67,082	783,037	18.6	100.0



〈그림 8〉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 **(통계 유의사항)** 2011년 3월 항공운송동향분석부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의 노선별 실적이 전체 공항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분석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 자료만 비교분석 하였으므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지역 구분은 아래 자료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지 역	포함 국가	비 고
일 본	일본	
미 주	미국, 브라질, 아이티, 칠레, 캐나다, 페루	괌, 호놀룰루, 사이판 제외
동남아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공화국,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홍콩, 마카오, 사이판 포함
중 국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
유 럽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공화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CIS) 그루지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대양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피지, 호주	괌, 호놀룰루 포함
기 타	(중동)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키스탄 (아프리카) 콩고 (기타) 국제선 국내공항 경우 노선	